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계웅

##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지난 사순절(2.25~4.11)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  
니다(엡 2:16). 주력교구별로 진행된 사순절 특별세례기도회, 전교인이 참석한 고  
난주간 특별세례기도회, 성금요일의 칸타타와 성찬식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교회  
는 복음과 찬송으로 충만했으며 우리의 삶은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외적  
상황이 나아져서 기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사순절기를  
통해서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좋은 또 하나의 기억으로만 남긴 채 다시금 세  
상(요일 2:16)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골 2:15).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절기(4.12~5.30)를 지나 오순절(5.31)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성금요일 예배 모습

### 성령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 (로마서 3:21~31)

즉, 메시아가 오셨고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소식은 하  
나님께서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롬 3:23~24).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옛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통치함을 받는 새 시대로 연결된 것이다.

우리는 '의'와 '죄'를 인간의 한 속성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잘  
못된 이해다. 바울이 죄를 바라보는 견해는 인간의 내면성,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  
다. 인간을 부패하도록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다(롬 3:23). '의'는 인간의 어떠한 마음  
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새 위치를 부여해 주시는 객  
관적인 능력이다. 그러므로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롬 3:26~27).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으로부터 임한 것으로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  
타나신 실존이다(엡 1:7~9).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의'  
도 새 세대의 특성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롬 1:17).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실존하  
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하여 성취되는 '의'와는 정반대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전혀 혼합되지 않고 임하였다(롬 3:28).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와 상당히 대조적이다(롬 3:21). 이것은 인간이 자  
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또 율법을 떠나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율법은 항상 인간에게 요구한다. 그러  
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새 세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을 원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행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  
법의 준수여부(행)는 '의'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당  
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율법이 복음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 아니다(마 5:17). 문제는 '어  
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났으며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떠나서 계시되고 임하였음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율  
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구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  
자로 표현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였으며 때가 차매 그리스도  
를 통하여 이제 나타난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제(롬 1:17)인 '믿  
음으로 의로워진 자'의 모습을 구약(창 2:4)에서 찾았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좋은 예다(롬 4:3; 창 15:6). 율법과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 반  
대로 증거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다. 아멘.

### 그들도 우리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 다음 주일(26일), 장애인주일

진정한 장애는 육체의 어떤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  
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돌아보  
아야 합니다(요일 5:1).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하듯 그들에게도 예수  
님이 절실합니다(롬 10:13).

\*다음 주일(26일) 찬양예배 시, 2009년 제2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sup>(1)</sup>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 <sup>(4)</sup>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sup>(5)</sup>As they journeyed,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Genesis 35:1~5)

Jacob, the son of Isaac and Rebekah, and the patriarch of Israel, had a troubled life. After deceiving his brother and father, he was forced to leave his homeland of Canaan because his twin brother, Esau, planned to kill him once their father died. On his journey to stay with his uncle Laban, his mother's brother, God met him in a dream. God confirmed to Jacob the Abrahamic covenant and also added the promises of giving and returning him to the land he now stood upon, and His presence with Jacob, wherever Jacob would go (Gen. 28:13~15). Jacob named the place where this happened Bethel,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ethel; however, previously the name of the city had been Luz" (Gen. 28:19). Bethel means house of God. After working, marrying, and having children in his uncle's land, Jacob was called by God to return to Canaan. Jacob came back to the land of Canaan, but not to the place of Bethel. While he dwelt in Shechem, two of his sons massacred and looted the city over their sister Dinah's defilement. Their actions caused serious trouble for Jacob. He was afraid that the other cities of Canaan would retaliate and destroy him and his household. He was in trouble again.

In his trouble, God called Jacob to go back to Bethel, "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Gen. 35:1). God called the wanderer to return. He called Jacob back to a place of dedication. God calls us to return to Him,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Bethel was the first place that Jacob rested on his journey away from Canaan. He met God there, and heard His voice and saw heaven and earth joined together by a ladder with angels coming up and down. It was here that God gave Jacob His promises. It was here that Jacob gave God his vows. Jesus wants us to come back to our place of commitment. He wants us to dwell with Him in God's grace. Please open your heart and mind to hear God's call.

In his trouble, Jacob consecrated his life,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among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 (Gen. 35:2). Jacob's conviction to go to Bethel brought action. He heard God's voice and decided to cleanse himself and his household. His motives were so sincere that he even instructed his family to change their clothes! As God's

children, we need to honestly look at our daily lifestyles and change things. We need to get rid of the strange plans, attitudes, and words that have crept into our lives. We need to sanctify ourselves for God's work. Are you convicted enough to make a change? Please make sure that your position in Christ is holy.

In his trouble, Jacob listened to God, "and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and I will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Gen. 35:3). Jacob followed God's word. He wanted to worship God. He wanted to dedicate himself to God. He wanted to see and meet God, and do what God wanted him to do. He acted personally and publicly. He had no shame. He knew that he had made a mistake. He didn't wallow in self-pity and guilt, but rather repented and moved toward God. He honored God and acknowledged His presence in his life. Do you listen and go after God? Do you remember that Jesus is always with you? Jesus say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Please listen to God and remember He is always with you.

In his trouble, God blessed Jacob. God knew Jacob's heart. God saw Jacob's actions. God heard Jacob's prayer. The Bible tells us, "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As they journeyed,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Gen. 35:4~5). God made the pathway to Bethel safe for Jacob and his family. The impact of Jacob's return was amazing! God is always with His children. There is not a trouble in the world that can block His blessing. Please turn to God and trust Him.

My dear friend, since Christ resurrected we can look forward to our resurrection. This is a beautiful goal. Please watch over your family life and give up your strange ambitions and gods. Even if you have enemies within your community, do not be afraid to go up to God in Christ Jesus. Jesus is calling us back to Bethel, and responding will impact others for God. Let us practice our faith, for Jesus is alive and He promises to resurrect us to eternal life in heaven. Let us rise and go up to Jesus Christ. Amen. 🙏



#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5:1~5)**



김성관 목사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숙인 후 그는 고향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지금 그가 서 있는 땅을 그에게 주고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창 28:13~15). 야곱은 그곳을 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창 28:19). 베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은 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베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겜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여동생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일로 인해 그의 두 아들이 그 성 주민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야곱에게 큰 근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다른 주민들이 그와 온 가족들에게 보복해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또 다시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베엘로 올라가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베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창 35:1).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헌신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베엘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여행하는 중에 처음으로 쉬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삶을 정결하게 하라

곤경에 빠졌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창 35:2). 베엘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확신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과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그의 동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합당하지 않은 계획과 태도, 언어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만큼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거룩한 곳을 확신하십시오.

##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곤경에 빠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창 35:3).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개인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과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좇아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창 35:4~5).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베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귀환에 미치는 영향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막을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헛된 욕망들과 우상들을 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응답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 마가복음 강해 67

## 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나 (12:35~37)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예언하였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사 11:1~2).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니라"(겔 34:23~24).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를 대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지만 광범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던 전문가들조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막 12:35).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마 1:1; 롬 1:3).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의 아버지가 다윗은 아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혈통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가르쳤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잘못을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지적하셨다(막 12:36; 시 110:1; 행 2:34~36).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다윗은 자신의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말할 것과 같다.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메시아의 아버지가 다윗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연이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질문을 던졌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

손이 되었느냐"(막 12:37).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한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밝힌 것이다.

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메시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다윗의 가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참조해 볼 때 다윗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선인이나 의인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입에 담기 거북한 죄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다윗의 계보에 있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요 17:12).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을 예측한 가르침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낮고 천한 말 구유의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과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좋다고 말만 할 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면 안 된다. 현대 교회에 존재하는 의식된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속기 때문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낮고 천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진실을 회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막 10:47; 행 2:30; 마 5:44).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빌 2:10~11; 막 14:62).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막 1:11; 8:29; 9:7; 14:61). 내 삶의 주인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인간적인 가치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자. 죄로 얼룩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자. "하여 게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감격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찬 92장). 아멘.

\* 매우 절묘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기칼럼

## 죄인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총

유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른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배워왔다. 1964년에는 해병대에 입대한 이후 강한 훈련과 명령, 그리고 복종만이 존재하는 특수한 군생활에 길들여졌다. 군생활 경험은 제대 후 객지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언젠가는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십자가'란 피를 두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때 나는 "말썽쟁이 생긴 사람이 할 일이 그렇게 없소? 그 종은 예수,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라고 반박하였다. 또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세요."라며 전도자가 찾아와 전도지를 건네 준 적이 있었다. 그때 역시 나는 전도지를 핑계하며 "바른 사람에게 말 잘 믿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은 찾아 오셨다.

예수님을 꾀박하던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에게 생긴 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다. 하직하던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가장 큰 괴로움은 조상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일이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많았다. 그 때마다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셨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사 2:6). 나를 바쳐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으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또 한번 기도하며 다짐한다(마 26:42). 예수님의 순종함을 본받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고 고백한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죄인인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불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30여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주님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부족한 자에게 유익부여 얻은 영광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티 없이 맑은 천사 같은 어린이들과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매주 바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천국영광들을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매순간 저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겠습니다. 아멘."



주병창  
(장로, 유치부부장)

## 늘 기도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처음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오고갈 뿐이었고, 결국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늘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 다니기를 희망하는 이웃을 전도하게 되면서 마침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도 함께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가득약육부에서 성경말씀을 배워가면서 최대한 놓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일에도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생겼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기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과정에 사내 죄를 대면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 위에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찬송가를 흥얼거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삶의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앞으로는 기도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백형선(성도, 새가득왕복부)



##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모진 고통과 수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험한 고난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지라도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성금요일에 부를 찬송과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려질 영광의 찬양을 이 지인 감히 주를 찬양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하신 말씀 의지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 힘쓰리. 내가 사는 것은 다 나의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편안해. 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또한 매주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놀라운 은총과 십자가를 통해 회개케 하시며 거듭남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마치는 승리의 그 날, 주님 꼭 만나 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김미연(문사, 13교구)

## 늘 찬송 부르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의 칸타타 준비는 저의 일정에 가장 중요한 찬송 시간이며,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금요찬양집회 달려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나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찬양 가사 안으로 들어가 은혜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 드러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치부 시절부터 천천에서 자라는 저였습니다. 교회로 향한 눈을 흘리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늘 감사했지만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것은 금요찬양집회 시간의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순절과 성금요일 찬양준비로 집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하면서도 늘 찬송 부르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성도들과 나에게도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성금요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선일(문사, 18교구)

## 아주 특별한 만난

올해는 '성금요일'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작년 12월부터 임마누엘 찬양대에 들어가면서 몇 주 후에 부를 찬양까지 미리 연습하게 되었고, 이번 성금요일 성찬에 배에 드려질 연합찬양 또한 그랬다. 이전에는 예배나 집회 때마다 그날 그날의 말씀 듣기에 급급했지만 찬양대원이 되고 보니 설교말씀과 같은 내용의 찬양을 미리 불러보면서 그 가사에 대해 먼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악하고 죄 된 입술임에도 주께서 귀한 도구로 삼으셔서 찬양으로 주의 말씀을 회중에게 외치고 선포하게 하심이 참 감사했다. 늦은 시간까지 매주 하는 연습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지휘자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거듭하여 부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깊이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었다. 그 깊이는 소리가, 음뿐만 아니라 묵상의 시어인 찬양의 가사 속으로 더욱 집중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금식을 하고 연합찬양 대회를 서기까지, 내 평생 경험했던 어느 성금요일과는 분명 달랐던 하루였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니 내내 느끼지 못했던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래서 어디 찬양이나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정작 찬양을 하고, 성찬찬을 하면서 나의 생각은 어느새 바뀌게 되었다. 고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기 좋은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돋보이고 싶었던 나였는데, 내 목소리는 어느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겸손해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목이 곧은 나, 주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나, 누구보다 교만했던 나를 꺾으시고 오직 예배의 주인이시며 찬양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찬양이 끝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은총의 복음과 성만찬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고 성찬의 시간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배고픔의 고통은 이천여 년 전의 예수님이 당하셨을 엄청난 고통과 심한 고난을 떠올리게 했고 이내 내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의 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굶주리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을 내 주님! 짐 배움과 조롱과 비난 속에도 순한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떡과 잔을 받으시오 나를 기쁘히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얼마나 감사한 날이며,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이 되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일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 가슴이 벅찼다. 오늘날 폭식하고 내일부터 훌훌 굶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육신이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도 기도로 호흡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이 게으르고 악한 종도 사랑해 주사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 잊지 않고 늘 삼고하며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성희(문사, 임마누엘 찬양대)



"두려워하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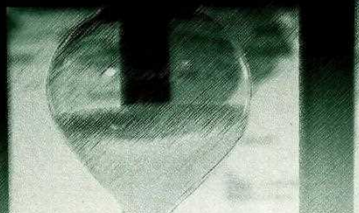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50

## 나의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다



첫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팀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갔지만 내 마음에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소망만큼 없었다. 처음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부터 전적인 나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 훈련과 네 차례의 실사를 거치며 내 입술로 모든 선교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셨을 때 참 감사했다. 개인적으로 선교 가지 못할 상황에 대하여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두 내려놓았을 때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 주셨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마치고 선교지로 향했다. 첫 사역 때, 나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다. 예전에 대학부에서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부끄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방인인 내가 그들에게 전도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러 왔다고 감히 말이나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고, 나의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

첫 사역을 마치고 속소로 돌아오는데 계속 의문이 들었고 주님께 질문했다. "주님, 제가 오늘 만난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여 주신 건가요? 내가 만난 영혼들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 맞나요?" 마음속의 이런 의문들을 팀원들과 나누었을 때 한 팀원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역 내내, 주님이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 부딪쳐 너무나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 복음을 전했고, 속소로 돌아와서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그 영혼들을 맡긴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점점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였고, 결국 주님은 사역 중에 나의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다. 선교를 통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며 8월 9일 동안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성지영(대학부 3팀)

##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선교지에서 살아계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사역지 한 곳 한 곳마다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와 함께 했던 운전기사는 우리가 초등학교 사역을 원하자 외국 의료팀이 방문한 후 아이들의 몸이 더 안 좋아져 학교에서 외국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학교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어리고 순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묻고 불러 주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네."라고 대답하며 나를 보며 생긋 웃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예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옆에서 자신에게도 이름을 물어봐 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주기를 기다리는 또래의 다른 영혼들의 모습 또한 정말 사랑스러웠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알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이런 기대감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땅에서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 주는 그들과의 잠깐의 만남은 선교팀 모두에게 힘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이루심을 더욱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찬양을 받고 계신다. 선교지의 모든 자원이 주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룩한 말씀이 성경에 써여 있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한 찬양하게 하셨다. 더불어 전권주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며, 모든 영광은 예수님으로 시작됨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이정희(대학부 4팀)

## 주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기쁜 고백이 있는 선교가 되길 기도하였다. 그러나 연약한 나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선교였다. 이번 선교를 돌아보면 많이 아쉽다. 원래 전도도 잘 못 할뿐더러 두려움이 많아 마음조차 어려워 더더욱 전도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에 빛인자로 나아갔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미안하다.

선교지의 사람들은 참 친절했다. 겉모습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지만 "집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낮은 외국인에게 먼저 "들어오라."고 반겨주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꼭 닫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또 아이들이 많았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말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만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는 복음 전파가 힘든 나라였다. 현지 경찰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여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들어 보지 못한, 그러나 듣기 원하는 참 귀한 영혼들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열매를 기대해 본다. "주님, 나의 입은 끊임없이 죄악을 말하나 내가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나는 비록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팀이 전한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교지 땅에 온전히 뿌려져서 주님 원하시는 땅으로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숙연(대학부 2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4월 23일(목) ~ 5월 1일(금) | 6교구 1팀 | 김정배 |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4월 15일(수) ~ 4월 23일(목) | 17교구 1팀 | 이정호 |
| 4월 16일(목) ~ 4월 23일(목) | 20교구 1팀 | 석귀수 |



#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부

산 소망의 기쁨으로 넘쳤던 부활절 아침,  
아주 맑은 영혼들로 가득한 사랑부 예배실이 있는  
중현복지관 지하 1층으로 갔다.  
그곳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들리던  
그들의 찬송소리는 정말 아름다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들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 사랑부를 지체장애와 자폐장애  
매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  
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김중국  
(장로, 부장)



♥ 예배를 드리는 사랑부 지체들의  
모습은 천사와 같습니다. 표면  
방식만 다를 뿐 찬송과 말씀은  
듣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뜨겁다는 것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신범식(목사, 지도)

♥ 사랑부를 섬길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른  
교회학교 부서와 달리 졸업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던  
지체들이 변함없이 나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감사하  
입니다. 이정택(안수집사, 총무부장)



♥ 가시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예  
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랑부 지체들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신준성(교사, 교육부장)

♥ 산에서 삼림욕을 하듯 사랑부  
학생들의 깨끗한 영혼들로 인  
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성연(교사, 소망3과)



♥ 어느 날 제가 섬기고 있는 학  
생이 그날 배운 말씀을 온전히  
로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여 그  
들이 가진 장래는 복음을 깨닫  
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  
다. 김현진(교사, 소망2과)

♥ 오늘날, 제 아들이 있는 유년부에서 부모초청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매번 저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맡고있는 사랑부 지체들은 제 삶의 활력  
소입니다. 매번 그들과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는 사  
실을 깨닫습니다. 김현애(교사, 사랑1과)

♥ 부서의 특성상 오랫동안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 꼬맹이시절부터 보아  
오던 학생들의 아름다운  
성장과정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새삼 느끼곤 합니  
다. 오늘날 그들과 몸을 부  
비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김경숙A(교사, 믿음2과)

♥ 정말로 연약한 자였지만 주  
님께서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을 통  
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  
정민(교사, 믿음2과)



♥ 모든 면에서 연약한 학생들이지만 오이려 그 약  
함으로 인해 더욱 크신 주님의 사랑을 매주 경험  
하고 있습니다. 정미연(교사, 사랑2과)

♥ 성경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었요.  
이유경(학생)



♥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오은실  
(학생)

##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 번호  | 성명  | 교과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과 | 소속부서 | 인도자     |
|-----|-----|----|------|---------|-----|-----|----|------|---------|
| 572 | 조명숙 | 8  | 장년2부 | 조성옥(11) | 596 | 김영혜 | 20 | 중등3부 | 김은진(20) |
| 573 | 김희태 | 16 | 장년1부 | 김영주(5)  | 597 | 신순덕 | 9  | 소말부  | 김성지(9)  |
| 574 | 박혜민 | 11 | 청년2부 | 황규리(23) | 598 | 박신구 | 11 | 장년1부 | 심정례(2)  |
| 575 | 홍지현 | 22 | 청년2부 | 김금순(24) | 599 | 홍지연 | 11 | 장년1부 | 심정례(2)  |
| 576 | 황재영 | 22 | 청년2부 |         | 600 | 박병선 | 11 | 초등부  | 심정례(2)  |
| 577 | 정민우 | 15 | 청년1부 | 오광순(11) | 601 | 나용주 | 9  | 대학부  | 박차희(9)  |
| 578 | 김은숙 | 6  | 장년1부 | 조윤재(22) | 602 | 임세희 | 17 | 청년1부 | 김기정(4)  |
| 579 | 이강훈 | 1  | 중등3부 | 이성숙(1)  | 603 | 이종원 | 18 | 고등부  | 이연준(15) |
| 580 | 강성애 | 8  | 장년1부 | 박 정(7)  | 604 | 유세희 | 11 | 초등부  | 오명준(11) |
| 581 | 강정남 | 11 | 장년2부 | 박애혜(11) | 605 | 서지미 | 9  | 장년1부 | 전은실(18) |
| 582 | 이금자 | 2  | 장년2부 | 서자화(24) | 606 | 최숙혜 | 11 | 장년2부 | 이월선(5)  |
| 583 | 김백민 | 1  | 교역자  |         | 607 | 송영덕 | 16 | 고등부  | 정혜현(22) |
| 584 | 박남미 | 1  | 청년2부 |         | 608 | 김부영 | 9  | 장년1부 | 김양숙(6)  |
| 585 | 김영슬 | 1  | 소년부  |         | 609 | 최수현 | 22 | 청년2부 | 최수진(18) |
| 586 | 김민슬 | 1  | 유년부  |         | 610 | 한영록 | 10 | 장년1부 | 한영지(11) |
| 587 | 김정훈 | 16 | 대학부  | 김 결(16) | 611 | 김지연 | 4  | 청년2부 | 최연희(4)  |
| 588 | 김윤창 | 1  | 교역자  |         | 612 | 송원용 | 9  | 청년2부 | 서귀순(9)  |
| 589 | 배정애 | 1  | 청년2부 |         | 613 | 정희운 | 1  | 청년1부 | 김순신(1)  |
| 590 | 김유준 | 1  | 유년부  |         | 614 | 김현정 | 5  | 청년1부 | 김경희(12) |
| 591 | 김예준 | 1  | 유치부  |         | 615 | 최재현 | 6  | 청년1부 | 손기영(9)  |
| 592 | 차진희 | 1  | 교역자  |         | 616 | 김채선 | 8  | 장년2부 | 윤병식(8)  |
| 593 | 이향란 | 1  | 교역자  |         | 617 | 전성민 | 1  | 대학부  | 고정순(2)  |
| 594 | 우태선 | 19 | 청년1부 | 박경혜(13) | 618 | 고영랑 | 23 | 대학부  | 이숙희(18) |
| 595 | 김부향 | 16 | 장년1부 | 김봉희(16) |     |     |    |      |         |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illegible]